



밀라노에서 온 구본창의 편지

사진작가 구본창이 한국 작가로는 처음으로 밀라노의 까를라 소짜니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전시의 제목은 <Bohnchang Koo>. 이상징적인 제목처럼, 구본창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이야기하고 싶었다. 한 번도 용감하지 않은 적 없었던 그의 서정성에 대해서.

구본창작가가 직접 보낸 셀프 포트레이트에는 사람은 없지만, 존재는 있다.

사진/까를라 소짜니 갤러리, 밀라노, 구본창 개인전



'Portraits of Time 01'(1998) © Koo Bohnchang



'White 03'(2000) © Koo Bohnchang



까를라 소짜니 갤러리와 조우한 구본창의 작품들



전시장 전경

구본창 작가의 밀라노 '까를라 소짜니 갤러리'에서의 개인전 소식과 함께 초대장을 받았다. <화이트> 시리즈 중 한 작품이었다. 1999년의 작품이니, 15년이 된 사진이 2014년의 전시를 상징하는 셈이다. 하지만 담쟁이 넝쿨이 얼마나 이 벽에 말라붙어 있었는지 알 길이 없듯이, 그의 사진에서도 도무지 시간이 읽히지 않는다. <화이트> 시리즈는 '세월의 흔적이, 선으로, 점으로, 최소의 단위들로 표시되어 있고' <백자> 시리즈는 시간의 흔적을 마치 꿈을 꾸듯 품고 있다. 그의 패션 화보 역시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링이 주는 단서를 빼면 언제 촬영한 건지 알아내기 힘들다. 독일 유학 시절에 찍은 <일본간의 독백(1980~1985)>에 등장하는 '청년 구본창'은 아예 다른 남자로 느껴지고 30년의 시간차는 중박해버린다. 불어불문학자 황현산 선생이 책 <밤이 선생이다>에서 쓴 문장, "구본창의 시선은 새롭고 용감하다"는 그의 사진과 인생이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여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를 대신 설명한다. 그리고 유학 중의 이탈리아 여행길, 우연히 어느 집회 장면을 찍으면서 "셔터를 누르면 생각대로 사진이 찍히는 느낌, 카메라가 내 눈 같다는 자신감"을 얻은 지 30여년 만에 이탈리아에서 개인전을 열게 됐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이, 시간을 붙잡았지만 결국 한편으로 시간을 초월하는 느낌일까요. 이게 단순히 오늘 몇 월, 며칠, 몇 시의 문제가 아니라 사공간을 떠나서 한편으로는 영원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게 영원해져야죠. 영혼을 발견하고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늘이 비현실적으로 맑았던 10월 말의 어느 날, 분당에 위치한 스튜디오에서 만난 구본창 작가는 직접 내린 커피를 권하며 말했다. 그는 11월 9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열릴 개인전은 물론 방사형으로 진행 중인 여러 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갤러리의 도면을 보여주면서 <백자> 시리즈는 여기에, <화이트> 시리즈는 또 여기에, <비누> 시리즈는 창문에 걸렸으며 상세히 설명해주었다. 그리고는 지난 2008년 서울에 10 피르소 꼬모가 오픈했을 때, <백자>와 콜라보레이션한 <Fashion Classic 100> 전시의 인연이 오늘에까지 이어진 것 같다는 감사의 표현도 잊지 않았다.

"유학 시절부터 이탈리아는 선망의 나라였어요. 그 자유로움에 늘 놀라곤 했죠. 다녀온 날은 여지없이 이탈리아에서 전시하게 될 그 날을 꿈꾸었어요. 또 1990년대 패션 화보 찍으러 밀라노에 가면 아, 언제 이런 데서 전시할까 했었죠. 게다가 제가 패션을 좋아하기 때문인지 늘 10 피르소 꼬모는 매력적인 장소로 인식되어 있었어요. 피터 린드버그나 파울로 로베르시가 작품을 걸었던 그곳에서 개인전을 열게 되다니, 저도 감회가 새로워요." 구본창은 까를라 소짜니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 첫 번째 한국 작가로 기록될 것이다. 이번 전시를 현실화할 수 있었던 건 지인인 이탈리아 작가 카를로 발세키의 도움이 컸다. "베니스에 다른 일로 갔다가 밀라노에 들렀는데, 그 친구가 작품이 좋라며, 날 갤러리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큐레이터도 소개받아 만나고, 서울 10 피르소 꼬모와의 인연도 이야기하고, 그 후 얼마 안 되어 연락이 왔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네요. 얼마 전에는 아를 사진축제에서도 행사가 있었고 싱가포르도 다녀와야 했지만, 밀라노는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까를라 소짜니 갤러리는 그 강력한 이름처럼 까를라 소짜니의 예술 취향을 바탕으로 하되 어떤 예술가의 작품도 돋보이게 하는 묘한 무중력의 화이트 큐브다. 지난봄 밀라노 출장길에 들렀을 때에는 크리스토퍼 마코프의 전시가 진행 중이었다. 앤디 워홀을 오마주한 이 사진작가는 워홀만큼이나 도발적이고도 내밀한 이미지를 담은 작품으로 유명하다. 지극히 미국적인 마코프의 작품들은 지극히 유러피언적인 장소, 밀라노 특유의 찬란한 햇빛이 쏟아지는 갤러리에서 모던한 생동감을 얻은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 구본창의 <백자>가, <화이트>가, <비누>가 전시된다면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갤러리의 분위기를 오히려 완전히 바꾸어놓을 거라 확신했다. "조르조 모란디라는 이탈리아 국민 화가가 있어요. 평생 화병만 추상적으로 그린 사람이죠. 그래서인지 이탈리아 사람들이 유독 내 백자를 더 좋아했고, 모란디의 작품을 많이들 상상하더라고요. 실은 나도 촬영할 때부터 모란디를 생각했어요. 이를테면 백자 뒤의 수평선을 가져올 거나 말 거냐를 고민했을 때도 그의 작품을 보고 넣기로 결정했죠. 지금도 그 선 때문에 백자가 더 존재감

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두 개 이상의 백자를 배치할 때의 간격, 쌓는 방식 등도 모란도에에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유럽의 관객들이 구본창의 작품에서 얻는 사유의 공통점은 'Still'이다. 구본창은 지난해 마드리드의 아이보리 프레스에서 열린 개인전 <Slow Talk>의 포스터를 펼치며 이렇게 설명한다. 마찬가지로 <화이트> 시리즈다. “아주 적막한 느낌인데, 그냥 죽어버리는 적막감이 아니라 고풍하고 해오. 내 사진의 모든 것에는 움직임이 많지 않아요. 정적인 가운데 뭔가 들리는 연한 미동 같은 거? 내가 시간을 붙잡는데 그 시간이 완전히 정지된, 죽은 시간이 아니라 영원으로 연결된다는 이야기랄까요. 어떤 사람은 송고함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물을 찍은 사진(<일본간의 독백> 시리즈)을 보면 작은 공간이지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화이트>도 담쟁이 넝쿨이 있는 아주 작은 벽인데 이게 굉장히 넓은 공간에, 이 끝이 확대된 느낌이고, 이런 감상들을 많이 이야기해주더군요.” 문화에 따라 사물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건 각자 진실처럼 받아들이고 살아온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불협화음이다. 그의 작품은 차이의 사이에서 국적불명의 무한한 ‘공명’을 만들어낸다.

철학자 롤랑 바르트는 저서 <카메라 루시다>에서 “사진은 존재의 본질과 자아, 거짓과 답습이 아닌 진실한 존재 자체가 하나로 융합되는 곳”이라고 했는데, 나는 구본창의 사진을 볼 때마다 이 문장을 떠올렸다. 작품의 중심에 항상 자신을 놓고, 가장 깊은 곳에 도달하기 위해 사진이라는 매체를 택한 작가. 구본창의 생각, 사상, 사고, 취향, 기억 등은 한 장의 사진에 압축되어 보듯 보이지 않게 은은한 드라마를 발산한다. 마드리드에서 그의 개인전을 주최한 아이보리 프레스(사진과 건축, 디자인으로 특화된 서점 겸 갤러리) 영국 더타임스가 유럽 최고의 서점 중 하나로 꼽았다는 대표 엘레나 포스터 역시 어느 인터뷰에서 그의 작품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어떤 이미지를 ‘찍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대상과 공간을 사진이라는 매체로 ‘담으려는’ 느낌을 준다.” 아마도 몇 년 전부터 포스터 부부의 침실과 복도에 빅 사이즈의 <화이트>를 걸어둔 것도, 노먼 포스터가 이 작품을 보면 하루 파곤이 짝 가시며, 그러므로 진정한 아름다움의 정수라 말할 것도 그런 이유 아닐까 싶다.

“아이보리 프레스에서의 오프닝 날, 고객을 불러모아 자기 집을 공개하는 오픈 파티가 있었어요. 직접 침실 문을 열고 작품이 걸린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웃음) 원래 이 갤러리는 차고였는데, 포스터가 직접 개조한 거예요. 회색 벽이나 기둥이 그대로 살아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죠. 마드리드에서 만난 관객들이 공간에 제 작품이 매우 잘 어울린다고 칭찬을 해주었어요. 흑백의 농담이 매우 기분 좋은, 매력적인 공간이었어요.” 아이보리 프레스에서의 개인전은 스위스의 어느 특별한 호텔에서의 프라이빗 전시와도 연결됐고, 그는 베니스, 파리 등 유럽 곳곳에서의 개인전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구본창의 분당 스튜디오는 그의 바람처럼 언젠가는 작은 미술관 혹은 박물관으로 쓰여도 손색없을 입체적인 공간이다. 이곳은 지금 모습 그대로도 거대한 아카이브다. 지금까지 진행한 작업들의 술한 단서들로 빼곡히 메워져 있고,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가 사이 좋게 자리를 나눠 갖고 있다. <백자>와는 정반대의 느낌인, 남성적이고 비밀스러운 곱돌 사진도 있고, 여덟 폭 병풍으로 만들어도 좋을 <지화> 시리즈의 오브제인 오리지널 지화도 있다. 석광주리에 한지를 씌워 직접 만든 조명, 베트남에서 사 온 흥등에 천을 씌워 담백하게 변신시킨 등, 잠자리 몸체를 부식시켜 만든 조명 등등. ‘시간을 수집하는 사진가’가 물건을 대하는 지고지순한 마음은 지난 2011년 국제갤러리에서 열린 전시 <컬렉션>이나 그의 책을 통해 익히 알고 있었다. 전날 밤, 인터뷰를 준비하던 나는 신기한 경험을 했다. 침실인지 서재인지 모를 방에 쌓인 책들, 소품들이 마치 칠 지난 코트처럼 건널 수 없을 정도로 구질구질하고 지긋지긋할 때가 있는데, 구본창의 <백자> <비누> 등을 열심히 들여다보다 보니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도 그저 애잔하고 쓰다듬어주고 싶어졌다. 이것이 바로 구본창 사진의 서정일터. 이 이야기에 그는 “텔레파시가 통했다”고 반색했다.

이번 밀라노 전시를 제외하더라도, 구본창의 2층 작업실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순서에 상관없이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를 사진건축에서 알게된 이탈리아의 출판사 다닐로 몬타나리에서 <백자>와 <화이트> 두 권의 책을 소담스러운 사이즈로 내기로 했다. 지난 2010년 전쟁기념관의 오브제

를 찍은 <침묵의 무기> 시리즈가 업데이트되어 오는 12월 한 권의 책으로 나온다. 전 세계에 흩어진 백자를 찾아 다니며 찍는 <백자> 시리즈는 여전히 진행 중인 작업이라, 촬영이 가능하다는 기별이 오면 어디든 카메라를 들고 달려갈 준비도 하고 있다. 삼성문화재단이 기획한, 한국 작가들의 시선으로 전통 건물물을 재해석한 사진집 시리즈 중 통도사와 소쇄원을 맡아 촬영하고 있다. 일본의 한 도예가에게 촬영을 의뢰 받아 책도 내고 전시도 할 예정. 그 와중에 마치 백자들의 모양이 서서히 바뀌는 듯한 형상을 담은 <백자>의 동영상 버전을 만들고 샌프란시스코 공원에 작품과 함께 전시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가 25년 전 전시 오프닝에 공연을 접목시키며 사진의 표현가능성을 고민한 남다른 감성의 사진가였다는 사실이 새삼 떠오른다. 전세계의 새로운 호텔에 갈 때마다 꾸준히 사진을 찍어두고 있다 하니, 이것이 책으로 묶여 나온다면 난 그의 충실한 독자로서 맨 먼저 서점으로 달려갈 것이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여전히 호기심이 많아요. 이는 작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죠. 즐기고, 경험하고, 교감하는 게 재미있으니까요. 패션 중에서도 새로운 질감의 옷에 특히 관심이 많은데, 어제도 무슨 반짝이 필름을 만드는 사람에 대한 기사를 봤어요. 그걸로 샐리의 옷도 만들고, 구두도 만들었다 하더군요. 전쟁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어머니들에 대한 이야기도 언젠가는 꼭 하고 싶는데, 이렇게 관심 가는 이야기를 발견하면 스크랩부터 해두어요. 쓰던 비누를 버리지 못하듯 이런 자료들도 수북이 쌓여 있죠. 언발이나 명절 때 고향에 가는 대신 저는 이 자료들을 다시 살펴봐요. 내 안에 다양한 폴더를 만들고 차곡차곡 쌓고 하나씩 꺼내 실현하는 과정은 제게 즐거운 영감을 줍니다. 이런 작업을 사이에서 전시는 하나의 사진이죠. (웃음)”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인다. “나다보 칸다라는 사진가 아니요? 영국에서 활동하는 시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 역시 자기 작업을 꾸준히 하면서도 매체와도 활발히 작업해요. 양자강을 따라가면서 주변의 풍경을 찍은 사진이 있는데, 언제 봐도 와, 참 잘한다 싶어요. 그러면서 <뉴스위크> 표지나 광고 사진도 자기 방식대로 잘 찍지요. 어빙 펜이나 리처드 아베돈은 나의 히어로였고요. 차라리 우리 세대 사진가들이 후배들보다 더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웃음)”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난 이번 구본창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이야기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는 설명이 필요 없는 사진작가이며, 우리에게도 이런 사진가가 있다는 사실을 새삼 안도하게 만드는 예술가다. 패션과 예술, 예술적 성취와 상업적 성공의 딜레마를 뛰어넘고 경계를 허물어뜨린 대한민국 최고의 사진가 선배. 그가 후배들로부터, 대중으로부터 존중 받는 이유는 그가 유명해서가 아니라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고독’을 즐기며 용감하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그에게 ‘현재의 이야기’란 그의 과거에 대한 무한한 존중의 의미이자 그의 미래에 대한 신실한 기대와 다름없다. 그의 사진에서 시간이 읽히지 않듯이, 그의 인생에게서도 마찬가지다. 구본창의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다. 그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전 여전히 서른여덟 살이에요.” 어쩌면 그에게 과거와 현재는 마치 사진과 삶이 그랬듯, 같은 말일지도 모르겠다.

P.S.) 며칠 후, 밀라노로부터 소식이 날아왔다. 구본창 작가는 오프닝 때 색감이 좋은 양복을 입고 라이카를 어깨에 메고 왔다고 했다. 까를라 소짜니는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그가 <바자>와 협업한 타임리스 피스 중 발렌티노 레드 드레스가 있었어요. 그 작업은 내 마음을 두드렸죠. 꼭 구본창을 초대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이날 오프닝에는 큐레이터, 아트 컬렉터, 현지 패션 에디터들, 밀라노 영사 등이 참석했고 모두 구본창의 팬이 되어 돌아갔다. 그리고 며칠 후, 구본창 작가가 메일을 보내왔다. 그는 몇 장의 사진과 함께 셀프 포트레이트를 찍어서 보내주었다. 사람이 없는, 하지만 있는, 자기 존재의 흔적을 담은 사진이었다. 그리고 짧은 글이 동봉됐다. “윤혜정 씨. 다행히 이곳에서도 처음 보는 동양적인 사진에 관심을 많이 보여주어 관객과 소통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패션, 디자인, 예술에 기본적으로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 진지하게 작품을 들여다보는 모습에 나도 감동했어요. 어떤 분은 짧은 시를 적어주고 가시기도 하고, 어떤 아저씨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감동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적극적인 관객의 반응에, 서울과는 문화적으로 많이 다른 나라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금요일에 파리로 갈 예정입니다.” **이** 에디터/ 윤혜정



구본창이 특히 아끼는 사진이다



구본창의 사진집이 함께 전시됐다



유러미언 스타일의 갤러리 내부 전경



까를라 소짜니와 구본창

‘<화이트>는 거울에 앙상하게 즐기만 남은 담쟁이 넝쿨들의 초상이다. 거울이 되어있어 떨어지고 말라비틀어진 채 담벼락에 붙어있는 즐거움들은 생명의 흔적과 시간의 흐름을 느끼게 한다. (중략) 나는 그런 담쟁이의 모습에서 불현듯 <식물성의 저항>이라는 이인성 작가의 산문집 제목을 떠올렸다. (중략) 담쟁이에게 ‘저항’은 비유가 아닌 실존의 표현일 것이다. 하얀 바탕에 흩뿌려진 점과 선들은 동양화 같은 아름다움을 가진 동시에, 마치 인체 속 실핏줄과 신경 조직의 마지막 세포 단위 혹은 무한한 우주 공간의 별들 같은 새로운 이야기를 보여주었다.’ - <공명의 시간을 담다> 中



Vessel (2006) © Koo Bohnchang



'Soap 20'(2006) © Koo Bohnchang



이날 오프닝에는 밀라노에서 활동하는 패션, 예술계의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탈리아에서의 첫 개인전을 밀라노에서 시작한 구본창은 유럽 각지에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